

노인의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조 해 선

단국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졸업

배 성 만[‡]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자살을 설명하는 Joiner의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PTS)을 근거로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 254명(남 108명, 여 14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의 각각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또한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은 자살시도와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시도와의 관계에서는 삶의 의미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기제를 확인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노인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IPTS,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 삶의 의미, 자살사고, 자살시도

[†] 본 연구는 조해선(2022)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배성만,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 교수, Tel: 041-550-1482, E-mail: spirit73@hanmail.net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이하 OECD)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21). 국내에서는 2011년 10만 명당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 10.9명의 2.1배로 여전히 높은 자살률이다(중앙자살예방센터, 2021). 이에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생명존중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배정순, 김춘경, 2017). 이러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OECD 가입국의 평균 자살률 16.5%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다.

노인의 주요 자살 위험요인으로는 신체 및 정신장애, 경제적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외로움 등이 강조되고 있다(김은아, 최윤정, 이미경, 2018; 임성욱, 김경희, 2018; 전영선, 허창구, 2019).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가까운 친지의 사망,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문제,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 단절 등이 노인 자살사고와 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노년기에는 은퇴와 가족 내 수행 역할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Kaya et al., 2020). 또한 노인의 스트레스, 미혼, 독거, 낮은 교육수준, 우울증상, 정신과 치료 경력, 자살 사고, 자살계획은 자살시도의 영향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정진영, 2020; 홍영경, 이무식, 2021;

Wiktorsson, Runeson, Skoog, Östlin, & Waern, 2010).

Joiner(2005)는 자살 현상에 대해 심리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살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이하 IPTS)을 제안하였다. IPTS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사회적 요인(지각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을 통합한 이론이다(Smith & Cutrowicz, 2010; Van Orden et al., 2010). 이 이론은 자살하고 싶은 욕구와 자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존재할 때 자살행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자살하고 싶은 욕구는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과 지각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자살을 실행할 수 있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Acquired Suicide Capability)을 획득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

좌절된 소속감은 가족이나 친구 집단같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노년기는 은퇴로 인해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속해 있던 집단에서의 철수를 경험하며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하여 분리되어 생활하거나 배우자의 사별로 혼자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홍주안, 권호인, 2018). 이는 노인이 좌절된 소속감을 흔히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노인의 자살률과 관련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이 가족 내에서 유대감을 적게 경험할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정미, 송영지, 남희은, 2012).

지각된 짐스러움은 자신을 무용한 존재로 느끼며 자신이 쓸모없는 나머지 친구나 가족같이 자

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사회에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끼는 인지, 정서적 상태로 정의된다(Joiner, 2005). 우리 사회는 구조상 다른 연령보다 노년기에 지각된 짐스러움을 경험하기 쉽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은퇴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러한 문제로 자신이 더 이상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끼기 쉽다(Cukrowicz, Cheavens, Van Orden, Ragain, & Cook, 2011). 노인 대상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주변인에게 짐이 된다고 느낄수록 자살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진, 이승연, 2012; 홍주안, 권호인, 2018; Cukrowicz et al., 2011).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자살할 수 있는 잠재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치명적이거나 치명에 가까운 자해능력을 의미한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으로 반복된 자해 또는 자살시도에 의해 습득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경험, 가까운 지인의 자살과 같은 직간접적인 경험도 자살 잠재력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윤일홍, 권해수, 2019). Joiner(2005)에 의하면 자살욕구만 있어서는 자살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살욕구와 자살 실행력 모두 존재할 때 자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노인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노인 대상으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조절 역할을 확인한 연구가 있지만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심유화, 2018).

자살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노인 자살의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영숙, 정영주, 2015; 하정미 외, 2012). 자살 연구에서 최근 긍정심리학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삶의 의미(meaning in life)’가 있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isel, Neufeld, & Flett, 2016; Ryff & Singer, 1998).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는 마지막 발달 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며(Erikson, 1980) 노인들의 삶의 의미 상실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의미에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현지, 권정혜, 2012; 홍주안, 권호인, 2018; Lutzman & Sommerfeld, 2021).

삶의 의미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인생 목표와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 즉 살아가는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삶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한데, Frankl(1959)은 삶의 의미를 삶에 대한 목표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Klinger(1977)은 삶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삶을 살게 하는 동기 즉, 삶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게 되는 이유로 보았다. Yalom(1980)은 삶의 의미를 개인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영성과 초월성의 개념으로서 우주적 의미로 확장하여 보기도 하였다. 이에 박선영과 권석만(2012)은 일치되지 않은 삶의 의미의 개념을 종합하여 개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는 ‘의미있다’고 판단하는 실제로 정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영역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종교, 초월

적 존재와의 연결까지도 함께 고려하였다(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는 특히 노년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오늘날 노년기를 삶을 마무리 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남은 생을 또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서수균, 백지영, 정영숙, 2012). 삶의 의미는 노인에게서 성공적 노화 등 여생을 행복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지, 송은희, 2012). 삶의 의미는 노인의 자살과도 관련되어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남석인과 시지혜, 정예은, 채주석(2019)의 연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삶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고 이는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Heisel과 Flett(2016)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자살사고를 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권중돈, 김유진과 엄태영(2011)의 연구에서는 자살 시도 실패 이후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단순히 자살과 부적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IPTS의 하위변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경험적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좌절된 소속감이나 지각된 짐스러움을 경험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강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Legendre, Stritzke, & Page, 2018). Joiner (2005)가 제안한 IPTS에 기초하여 노인 자살을 설명한 기존 연구들은(홍주안, 권호인, 2018; 추경진, 이승연, 2012; Eades, Segal, & Coolidge, 2019) 자살사

고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이덕남, 2020; Witte et al., 2006). 자살사고는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되며, 자살시도는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O’Carroll, Berman, Maris, & Moscicki, 1996). 자살사고는 자살시도와는 다른 속성을 지니며, 자살사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김현경, 고성희, 정승희, 2010; 이현지, 김명희, 2007; 정명희, 허성희, 2017). 또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사고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자살 시도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자살행동의 위험성이 더 높다(배은경, 이민규, 2018; Bostwick, Pabbati, Geske, & McKean, 2016). 이에 노인의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수의 연구가 노인의 자살시도를 다루었으나 사례연구와 실태조사에 한정되어 있다(권중돈 등, 2011; 정명희, 허성희, 2017). 자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자살사고 뿐만 아니라 자살시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고, 자살의 보호요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삶의 의미는 자살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이시은, 홍(손)귀령,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모두 고려하고,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노인 자살의 위험요인임을 검증하고자 하며 이들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할 것인가? 둘째,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할 것인가? 셋째,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할 것인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 2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 설문지 폼) 또는 오프라인으로 설문 진행 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의 경우 지인을 통한 홍보, 지역 시장 상권 및 노인복지시설 방문, 공원 부스 설치를 통한 설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의 254명 중 온라인 설문에서는 87명이 참여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에는 167명이 참여하였다. 온·오프라인 방법에 따른 참여자 특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은 108

명 (42.5%), 여성은 146명(57.5%)이었고, 평균 연령은 73.14세($SD=5.58$)로 연령의 범위는 만 65세에서 87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포함한 모든 연구절차는 단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2020-11-025-005).

측정도구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 보고식 척도인 개정된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INQ-R, Van Orden et al., 2012)를 조민호(2010)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INQ-R에 맞게 문항을 선별한 김보미와 유성은(2012)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개정판 대인관계 욕구 질문지는 7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 평정하며 좌절된 소속감 6문항(예, 요즘 나는 친목 모임에서 소외된 것 같다), 지각된 짐스러움 9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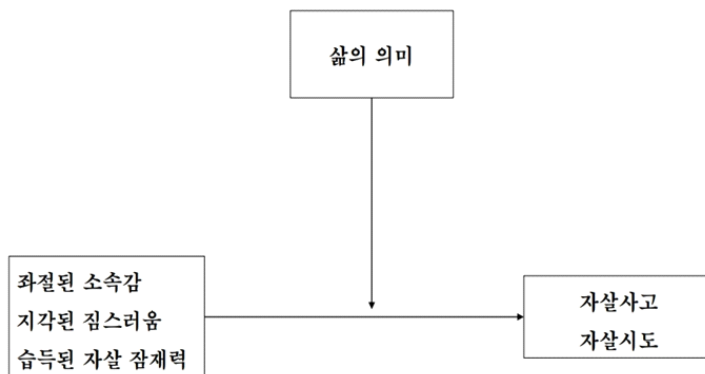


그림 1. 조절효과 연구 모형

항(예, 요즘 나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 없어질 것 같다고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Van Orden(2012)의 연구에서는 INQ-R의 Cronhach's α 는 좌절된 소속감 문항이 .85, 지각된 짐스러움 문항이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hach's α)는 좌절된 소속감 문항이 .90, 지각된 짐스러움 문항이 .95로 나타났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소 척도. 습득된 자살 잠재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살 잠재력-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소 척도(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Fearlessness about Death: ACSS-FAD)는 초기 버전인 습득된 자살 잠재력 척도(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ACSS)를 수정 및 보완한 척도이다(Ribeiro et al., 2014; Van Orden et al., 2008). ACSS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자극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문항 12개, 통증 감내력 문항 1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CSS-FAD는 ACSS의 하위 문항들과 비교하였을 때 내적 일관성이 높았다(Bender, Gordon, Bresin, & Joiner, 2011; Ribeiro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Seo 와 Kwon(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ACSS-FAD는 5점 Likert 척도로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 평정하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Seo와 Kwon(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h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척도. 노인의 삶의 의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시은과 홍(손)귀령(2017)이 개발한 노인의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Scale: MLS)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삶의 의미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한국 노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Park & Park, 2013). 국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생의 의미 측정 도구(Elderly Meaning In Life Scale: EMIL)가 있으나,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며, 신뢰도에서도 4개의 하위 요인의 신뢰도가 .70 미만으로 나타났다(Choi, Kim, Shin, & Jung,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삶의 의미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노인의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노인의 삶의 의미는 총 12문항으로 삶의 가치(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족스럽다) 6문항, 삶의 원천(예, 가족들은 나를 존중해준다) 3문항, 삶의 의지(예, 나는 오래 살고 싶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이시은과 홍(손)귀령(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h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 질문지. 자살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살사고 질문지(Suicide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살사고 질문지는 Reynolds(1987)이 개발하고 신민섭(1992)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이후 서미순(2005)이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나는 때때로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서미순(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컬럼비아 대학 자살심각성 평가 척도. 자살시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Posner, Oquendo, Gould, Stanley, Davies(2007)가 개발하고 이창수 (2011)가 국내 번안 및 타당화하여 김은진(2015)이 재구성한 자살시도 척도 (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in Korea: C-SSRS)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있다, 없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 죽으려는 의도/욕구에 의해 실제로 자살을 실행한 적이 있다, 목숨을 끊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또는 무슨 일로 중단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0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시도한 횟수가 점수가 된다. 김은진(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8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 한글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과 Hayes(2012)의 PROCESS macro for SPSS version 2.16을 이용해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실시되었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조절변인의 특정값(Mean - 1SD, Mean, Mean + 1SD)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Franzier, Tix, & Barron, 2004).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좌절된 소속감은 삶의 의미와 부적 상관($r=-.297, p<.001$)을,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r=.368, p<.001$)을 나타냈다. 지각된 짐스러움은 삶의 의미와 부적 상관($r=-.472, p<.001$)을,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r=.412, p<.001$)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삶의 의미와 부적 상관($r=-.131, p<.05$)을 보였으며 자살사고($r=.282, p<.001$)와 자살시도($r=.240, p<.001$)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

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김보미와 유성은(2012)이 타당화한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 척도는 2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2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결과,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사고에 정적인 영향($B=.230, t=4.359, p<.001$)을 미쳤으며 삶의 의미는 자살사고에 부적인 영향($B=-.370, t=-6.613, p<.001$)을 미쳤다. 좌절된 소속감과 삶의 의미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49, t=-3.294, p<.01$). 이러한 결과는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좌절된 소속감과 삶의 의미의 상호작용 효과가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삶의 의미의 특정값(Mean -1SD, Mean, Mean +1SD)에서 단순 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단순 회귀선은 삶의

의미가 높은 집단($B=.080, t=1.080, p=.277$)을 제외한 평균과 삶의 의미가 낮은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가 낮은 집단($B=.379, t=5.572, p<.001$)이 평균 집단($B=.230, t=5.191, p<.001$)에 비해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 사이에서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가 낮은 집단에서는 좌절된 소속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Hayes, 2012). 삶의 의미는 자살시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341, t=-5.508, p<.001$). 그러나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과 ($B=.058, t=.962, p=.336$), 좌절된 소속감과 삶의 의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B=-.092, t=-1.835,$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N=254)

	1	2	3	4	5	6
1. 좌절된 소속감	-					
2. 지각된 짐스러움	.542***	-				
3. 습득된 자살 잠재력	.128*	.215**	-			
4. 삶의 의미	-.297***	-.472***	-.131*	-		
5. 자살사고	.368***	.412***	.281***	-.483***	-	
6. 자살시도	.177**	.176**	.240***	-.386***	.525***	-
M	15.93	24.29	19.25	34.05	31.00	.094
SD	6.08	12.24	5.49	5.64	7.49	.51
왜도	.395	.756	-.364	-1.129	.911	5.570
첨도	-.082	.003	-.252	1.947	1.947	31.170

* $p<.05$, ** $p<.01$, *** $p<.001$.

$p=.077$)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는 노인의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Hayes, 2012).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223, t=3.795, p<.001$). 반면, 삶의 의미가 자살사고에 부적영향을 미쳤으며($B=-.277, t=-4.441, p<.001$), 지각된 짐스러움과 삶의 의미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33, t=-4.473, p<.001$). 이러한 결과

표 2.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N=254$)

변수	종속변수: 자살사고					R^2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t	LLCI	ULCI	
상수항	-.044	.053	-.822	-.150	.061	.318
좌절된 소속감	.230	.054	4.359***	.122	.333	
삶의 의미	-.370	.056	-6.613***	-.480	-.260	
좌절된 소속감 × 삶의 의미	-.149	.045	-3.294**	-.238	-.060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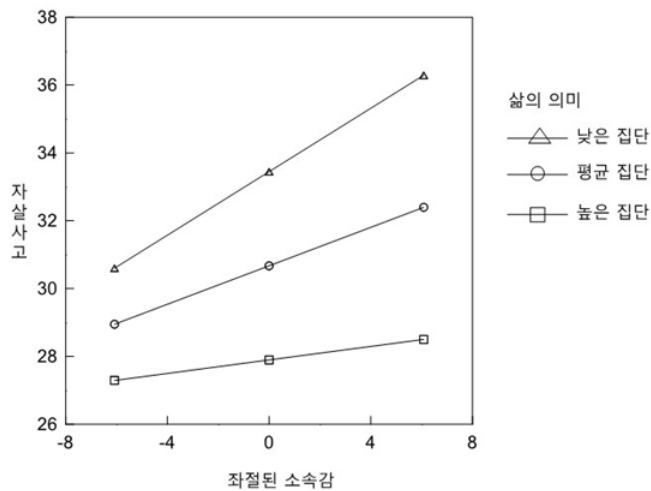


그림 2.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삶의 의미의 특정값(Mean -1SD, Mean, Mean +1SD)에 따라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단순 회귀

선은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B=-.010$, $t=-.124$, $p=.901$)을 제외한 나머지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은 집단($B=.456$, $t=5.958$, $p<.001$)은 평균 집단($B=.223$, $t=3.795$, $p<.001$)에 비해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 사고 사이에서 더 강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의미 수준이 낮거나 평균 집단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지만,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각된

표 3.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N=254$)

변수	종속변수: 자살사고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t	LLCI	ULCI	R ²
상수항	-.027	.059	-.457	-.144	.090	
좌절된 소속감	.058	.060	.962	-.061	.178	
삶의 의미	-.341	.062	-5.508***	-.463	-.219	.164
좌절된 소속감 × 삶의 의미	-.092	.050	-1.835	-.190	.006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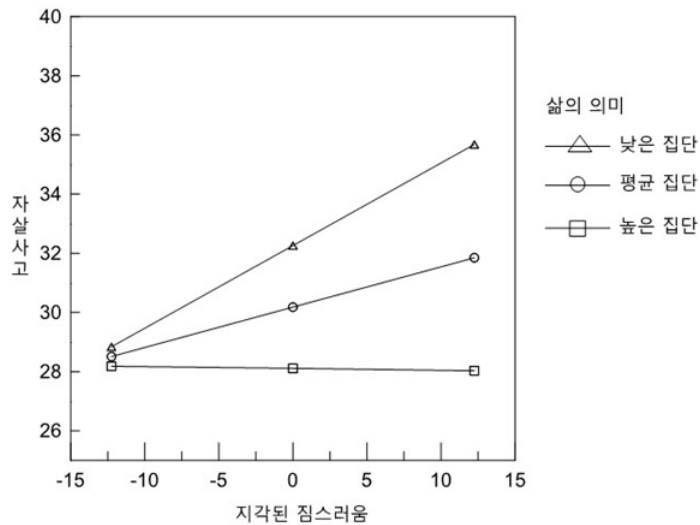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짐스러움이 높더라도 자살사고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Hayes, 2012). 삶의 의미는 자살시도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352, t=-5.031, p<.001$). 그러나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과 ($B=-.013, t=-.394, p=.839$) 지각된 짐스러움과 삶

의 의미 간의 상호작용 효과($B=-.093, t=-1.599, p=.111$)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표 5에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Hayes, 2012).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자살사고에

표 4.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N=254$)

변수	종속변수: 자살사고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i>t</i>	LLCI	ULCI	<i>R</i> ²
상수항	-.109	.057	-1.916 [†]	-.222	.003	.330
지각된 짐스러움	.223	.058	3.795 ^{***}	.107	.338	
삶의 의미	-.277	.062	-4.441 ^{***}	-.400	-.154	
지각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233	.052	-4.473 ^{***}	-.335	-.130	

[†] $p<.06$, ^{***} $p<.001$.

표 5.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N=254$)

변수	종속변수: 자살시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i>t</i>	LLCI	ULCI	<i>R</i> ²
상수항	-.043	.064	-.685	-.685	.493	.157
지각된 짐스러움	-.013	.065	-.202	-.143	.116	
삶의 의미	-.352	.070	-5.031 ^{***}	-.438	-.214	
지각된 짐스러움 × 삶의 의미	-.093	.058	-1.599	.111	-.021	

^{***} $p<.001$.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7, t=3.652, p<.001$). 한편, 삶의 의미는 자살사고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377, t=-6.270, p<.001$).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삶의 의미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129, t=-2.749, p<.01$). 이러한 결과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노인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표 6에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인인 삶의 의미의 특정값(Mean -1SD, Mean, Mean +1SD)에 따라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단순 회귀선은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B=.067, t=.877,$

표 6.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N=256$)

변수	종속변수: 자살 시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LLCI	ULCI	R ²
상수항	-.016	.053	-.317	-.121	.087	
습득된 자살 잠재력	.197	.054	3.652***	.090	.303	
삶의 의미	-.377	.060	-6.270***	-.495	-.258	.302
습득된 자살 잠재력 × 삶의 의미	-.129	.047	-2.749*	-.254	-.030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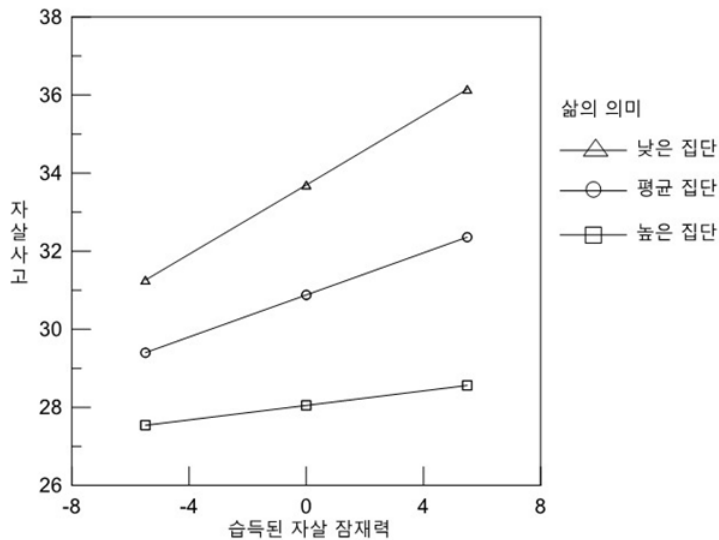


그림 4.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p<.381$)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였으며,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은 집단($B=.326, t=4.977, p<.001$)은 평균 집단($B=.031, t=.342, p<.06$)에 비해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더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삶의 의미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지만,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1번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7.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N=256$)

변수	종속변수: 자살시도					R^2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LLCI	ULCI	
상수항	-.023	.055	-.424	-.133	.086	
습득된 자살 잠재력	.159	.056	2.798**	.047	.270	
삶의 의미	-.252	.063	-3.990***	-.377	-.128	.27
습득된 자살 잠재력 × 삶의 의미	-.182	.049	-3.676**	-.279	-.084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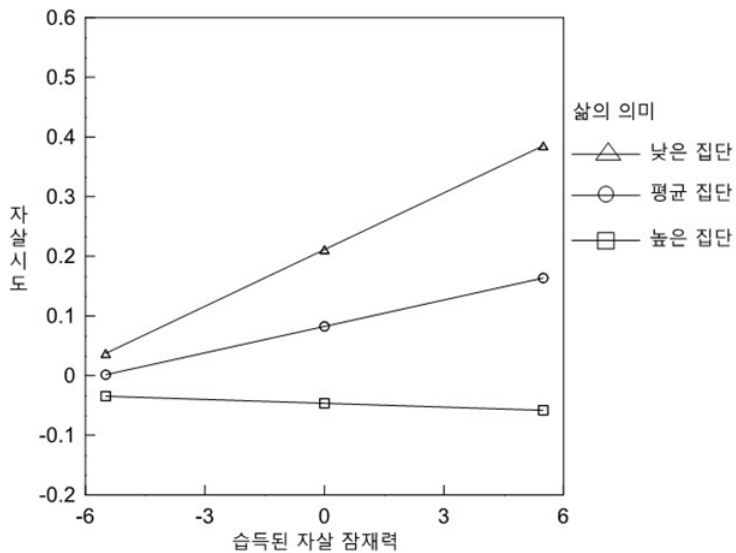


그림 5.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

이는 표 7에 제시하였다(Hayes, 2012).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자살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159, t=2.798, p<.01$). 한편, 삶의 의미는 자살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52, t=-3.990, p<.001$).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삶의 의미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B=-.182, t=-3.676, p<.01$).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삶의 의미의 상호작용의 세부적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 변인인 삶의 의미의 조건 값(Mean -1SD, Mean, Mean +1SD)에 따라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시도 관계에서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단순 회귀선은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집단($B=-.023, t=-.285, p=.775$)을 제외한 나머지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은 집단($B=.341, t=4.939, p<.001$)은 평균인 집단($B=.159, t=2.798, p<.05$)에 비해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삶의 의미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에서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증가하지만,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노인에서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의하였으며, 삶의 의미 수준이 낮은 집단($B=.341, t=4.939, p<.001$)은 평균인 집단($B=.159, t=2.798, p<.05$)에 비해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삶의

의미 수준이 낮거나 중간인 집단에서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증가하지만,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노인에서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노인의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사이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TS의 하위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의미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지만(하정미 외, 2012; Joiner, 2005),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는 자살사고를 낮출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Kleiman & Beaver, 2013; Lapierre, Dube, Bouffard, & Alain, 2007). 또한, 자살위기에 삶 의 의미의 개입이 자살사고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arlow et al., 1986; Heisel & Flett, 2004).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한 신체 질병과 배우자나 지인들의 사망으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좌절된 소속감을 완화하여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노인 대상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제공, 자살예방프로

그럼, 긍정심리집단프로그램, 노래치료, 미술치료의 실시 이후 삶의 의미가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도지화, 2020; 오현주, 강문희, 2022; 윤경섭, 문소영, 2020; 전리라, 2020; Krause, 2007).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시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 시도 보다는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Joiner, 2005). 여러 선행연구에서 좌절된 소속감은 지각된 짐스러움이나 우울과 같은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단적으로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강희양, 장은진, 2018; 김은영, 김병석, 2020; Choi & Bae, 2020).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만으로는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지각된 짐스러움이 높더라도 삶의 의미 수준이 높다면 자살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각된 짐스러움 수준이 높은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살사고를 삶의 의미가 조절한다는 홍주안과 권호인(201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삶의 의미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역경에서도 자살을 보호하는 요인임을 밝힌 Collins과 그의 동료들(2018)의 연구와 유사하다. 노인들은 환경적·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가족, 사회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기 쉬우며 이는 자살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살사고가 감소할 수 있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지각된 짐스러움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Debats, 1999).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목표지향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이는 희망을 고취하게 된다(Snyder et al., 1991). 이러한 희망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개인이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의미의 긍정적인 측면이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각된 짐스러움과 자살시도와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 시도 보다는 자살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Joiner, 2005).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살시도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김은영, 김병석, 2020; Van Orden et al., 2008).

셋째, 습득된 자살 잠재력과 자살사고 및 자살 시도와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센터, 학교나 지역사회 연구에서도 유의하다는 메타분석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Ma et al., 2016). 이는 자살 행동의 통합-의지 모형이론(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e behavior: IMV)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합-의지모형에서 자살은 자살사고와 자살시도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닌 연속선상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자살사고가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살

동기가 개입한다고 가정한다(O'Connor & Kirtley, 2018). 자살동기는 구체적으로 자살의 노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 등이 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재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하위 변인이다. 삶의 의미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신경희, 강기수, 2020; Frankl,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의미가 자살 실행력을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서장원(2018)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하여 자살시도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살예방에 있어서 삶의 의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과 의의를 가진다. 먼저 IPTS의 하위 변인인 좌절된 소속감, 지각된 짐스러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노인의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것은 자살에 있어 자살 잠재력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은 자살 행동을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사고자와 자살시도자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적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살 위험성 평가 및 개입에 있어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배은경, 이민규, 2018; Choi & Bae, 2020).

노인의 자살문제에 있어서 노인의 자살 특성을 고려하면 습득된 자살 잠재력 평가는 유용할 수 있다. 자살을 준비하는 노인은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정애, 2018; 장현정, 유지영, 2020). 또한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 시도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살사고가 있는 사람이 자살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배은경, 이민규, 2018). 이때 자살사고자와 자살 시도자를 변별할 수 있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 평가는 자살위험 수준을 분석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중요하다.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도 습득된 자살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자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Choi & Bae, 2020; Ryu & You, 2017).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자살위험 평가에서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핵심적인 공헌은 자살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좌절된 소속감과 지각된 짐스러움,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수준이 높더라도 삶의 의미를 강하게 지각하면 자살사고가 감소함을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 개입에서 삶의 의미를 교육하고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삶의 의미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박선영, 권석만, 2012). 개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생존 욕구를 거스를 만큼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 이때 삶의 의미 개입은 현재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개인이 지각하는

고통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다 (Frankl, 1959). 이에 대해 King과 Pennebaker(1998)은 개인이 삶의 의미를 통해 고난과 역경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적인 대처방식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으로 설계됨에 따라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하위 개념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 감내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습득된 자살 잠재력의 하위 요인으로 알려진 통증 감내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고려하여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건강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최근, IPTS 창시자인 Joiner도 우울과 양극성장애, 사회 불안장애, PTSD, BPD등과 같은 정신병리가 IPTS 변인들과 자살 사이에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Silva, Riveiro, & Joiner, 201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노인의 신체적 건강 및 기능, 정신건강을 고려하여 IPTS 변인들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정애 (2018). 노인의 도움요청 실태 및 도움요청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7, 165-193.
 권중돈, 김유진, 엄태영 (2011). 노년기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인복지연구*, 52, 419-446.
 강희양, 장은진 (2018).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의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짐스러움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2), 461-469.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김은진 (2015). 우울과 충동성이 비행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은영, 김병석 (2020). 대학생의 짐된 느낌,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무망감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87-313.
 김은아, 최윤정, 이미경 (2018). 노인의 우울, 자살사고와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6(2), 179-208.
 김종혁, 육성필 (2017). 초기성인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 습득된 자살실행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87-808.
 김현경, 고성희, 정승희 (2010). 노인의 자살 생각과 위험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1), 82-92.
 남석인, 시지혜, 정예은, 채주석 (2019). 노년기 삶의 의미와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74(2), 163-192.
 도지화. (2020). 의미치료 기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7(4), 813-835.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배은경, 이민규 (2018). 스트레스와 무망감이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목적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4(1), 187-209.

- 배정순, 김준경 (2017). 생명존중의식이 자살위험성과 공격성,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과 생명존중프로그램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4), 1-22.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8). 『노인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2020 자살예방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 중앙자살예방센터
- 신경희, 강기수 (2020).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에서의 고통의 의미와 교육적 시사. *교육사상연구*, 34, 71-91.
- 서미순 (2005).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유균, 백지영, 정영숙 (2012). 노인의 스트레스 및 삶의 의미성과 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7-30.
- 서장원 (2018). 자살 실행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813-834.
- 심유화 (2018).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대인관계 심리학적 자살 이론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정, 박은희, 홍현주, 송정은, 육기환, 김소은 (2013). 청소년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 서 회복탄력성의 역할.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2), 351-366.
- 오현주, 강문희 (2022). 자살예방프로그램이 농촌 거주 저소득 80세 이상 여성 노인의 통증, 우울, 삶의 의미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산업융합연구*, 20(6), 65-72.
- 윤경섭, 문소영 (2020). 노래심리치료가 노인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심리재활연구*, 1, 37-59.
- 이덕남 (2020).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자존감결여와 삶의 고통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7(1), 1327-1336.
- 이시은, 홍(손)귀령 (2017). 노인의 삶의 의미 측정 도구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1).
- 이창수 (2011). 컬럼비아 대학 자살 심각성 평가 척도 (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Scale)의 한국에서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 김명희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무망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3), 243-264.
- 이현지, 송은희 (2012). 요양시설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와 가족지지, 시설환경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노인복지연구*, 58, 233-252.
- 임성욱, 김경희 (2018). 전기·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 *사회복지정책*, 45(3), 39-62.
- 윤일홍, 권해수 (2019). 우리나라 자살률 추이의 재해석: 좌절된 소속감과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의 입장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1), 103-126.
- 전리라 (2020). 긍정심리 집단프로그램이 여성 독거노인의 정서와 감사,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선, 허창구 (2019). 노인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 64-74.
- 정명희, 허성희 (2017). 주변인의 자살경험이 노인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305-333.
- 정영숙, 정영주 (2015). 한국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관련 변인들의 고찰: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3), 227-254.
- 정진영 (2020). 지역사회 0거주 노인의 정신건강 및 기능장애와 자살시도의 관련성: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대한보건연구*, 46(2), 61-73.
- 조민호 (2009).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추경진, 이승연 (2012).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31-53.
- 하정미, 송영지, 남희은 (2012). "인식된 짐스러움" 과 "좌절된 소속감" 이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노인복지연구, 55(1), 65-84.
- 홍영경, 이무식 (2021). 한국 노인에서 자살시도의 관련 요인-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0), 719-726.
- 홍주안, 권호인 (2018). 인식된 짐스러움이 노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와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11-42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ostwick, J. M., Pabbati, C., Geske, J. R., & McKean, A. J. (2016). Suicide attempt as a risk factor for completed suicide: even more lethal than we kn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3(11), 1094-1100.
- Choi, B. R., & Bae, S. M. (2020).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7, 105282.
- Collins, K. R., Legendre, M. N., Stritzke, W. G., & Page, A. C. (2018). Experimentally-enhanced perceptions of meaning confer resilience to the interpersonal adversity implicated in suicide risk.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61, 142-149.
- Cukrowicz, K. C., Cheavens, J. S., Van Orden, K. A., Ragain, R. M., & Cook, R. L. (2011).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e ideation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6(2), 331.
- Debats, D. L. (1999). Sources of meaning: An investigation of significant commitments in lif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4), 30-57.
- Eades, A., Segal, D. L., & Coolidge, F. L. (2019). Suicide risk factors among older adults: exploring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in relation to personality and self-este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8(2), 150-167.
- Frankl, V.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MA: Beacon Press.
- Frankl, V. E. (1966). What is meant by meaning?. *Journal of Existentialism*, 7, 23-28.
- Frankl, V.E. (2020).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Man's search for meaning*:] (이시형 역) 서울: 청아출판사
- Harlow, L. L., Newcomb, M. D., & Bentler, P. M.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5-21.
- Hayes, A. F. (2012).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2.11)* [Software]. Available from <http://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 Heisel, M. J., & Flett, G. L. (2016). Does recognition of meaning in life confer resiliency to suicide ideation among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6), 455-466.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2007). *Why people die by suicid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ya, A., Tasar, P. T., Meral, O., Sahn, S., Balkay, M., Aktas, E. O., & Akcicek, F. (2020).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ople suicides by sex and age subgroups. *Legal Medicine*, 46, 101721.
- Kleiman, E. M., & Beaver, J. K. (2013). A meaningful life is worth living: Meaning in life as a suicide resiliency factor. *Psychiatry Research*, 210(3), 934-939.
- Klinger, E. (1977). *Meaning and void: Inner experience and the incentives in peoples lives*. U

- of Minnesota Press.
-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3), 456.
- Lapierre, S., Dube, M., Bouffard, L., & Alain, M. (2007). Addressing suicidal ideations through the realization of meaningful personal goals. *Crisis, 28*(1), 16-25.
- Ma, J., Batterham, P. J., Calear, A. L., & Han, J. (2016).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diction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Review, 46*, 34-45.
- O'Carroll, P. W., Berman, A. L., Maris, R. W., Moscicki, E. K., Tanney, B. L., & Silverman, M. M. (1996). Beyond the Tower of Babel: a nomenclature for suicidolog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6*(3), 237-252.
- O'Connor, R. C., & Kirtley, O. J. (2018). The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3*(1754), 20170268.
- OECD (2020),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 (Accessed on 12 November 2020)
- Posner, K., Oquendo, M. A., Gould, M., Stanley, B., & Davies, M. (2007). Columbia Classification Algorithm of Suicide Assessment (C-CASA): classification of suicidal events in the FDA's pediatric suicidal risk analysis of antidepressa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4*(7), 1035-1043.
- Reynolds, W. M. (1987).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beiro, J. D., Witte, T. K., Van Orden, K. A., Selby, E. A.,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14). Fearlessness about death: th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revision to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6*(1), 115.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 Ryu, S., & You, S. (201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ifferentiating suicide attempters from ideators: An examination of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and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4), 589-603.
- Segal, D. L., Qualls, S. H., & Smyer, M. A. (2018). *Aging and Mental Health*. John Wiley & Sons.
- Seo, J. W., & Kwon, S. M. (2018). Preliminary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Scale-Fearlessness About Dea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8*(3), 305-314.
- Silva, C., Ribeiro, J. D., & Joiner, T. E. (2015). Mental disorders and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Psychiatry Research, 228*(1), 316-327.
- Smith, P. N., & Cukrowicz, K. C. (2010). Capable of suicide: A functional model of the acquired capability component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0*(3), 266-275.
- Song, H. S., & Bae, S. M. (2020).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Facets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16.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J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72.
- Van Orden, K. A., Witte, T. K., Cukrowicz, K. C., Braithwaite, S. R., Selby, E. A., & Joiner Jr, T. E.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
- Van Orden, K., & Conwell, Y. (2011). Suicides in late life. *Current Psychiatry Reports*, 13(3), 234-241.
- Wiktorsson, S., Runeson, B., Skoog, I., Östling, S., & Waern, M. (2010). Attempted suicide in the elderly: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70 years and older and a general population comparison group.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1), 57-67.
- Yalom, I. D. (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원고접수일: 2022년 1월 17일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18일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31일

The moder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the effects of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cquired capability of suicide 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in the elderly

Hae Seon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Dankook University

Sung-Man Bae

Department of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Dankook University

Based on Joiner's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IPTS),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acquired suicide potential had a moderating effect on suicide ideations and suicide attemp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260 elderly people over the age of 65 in Seoul, Gyeonggi-do, Gyeongsan-do, and other regions of Korea. A total of 254 copies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6 questionnaires that did not meet the age criteria. IBM SPSS Statistics 23.0 and SPSS PROCESS Macro ver 2.16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b-variables of IPTS such as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acquired suicidal capability all showed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On the other hand, only acquired suicidal capability had a direct effect on suicide attempt. Second, the meaning in life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relationships of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acquired suicidal capability with suicidal ideation.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meaning in life, although the meaning in life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quired suicide capability and suicide attempt. Based on these results, risk factors and mechanisms that effect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of the elderly were identified. In addition, by confirming a moderating effect of the meaning in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specific interventions that could reduce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the elderly.

Keywords: IPTS,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Thwarted belongingness, Perceived burdensomeness, Acquired suicide capability, Meaning in life,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s